

니부어

「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」 집단 이기심

1. 주장 : 7. 개인의 도덕성은 집단에서 약화

↳ 집단은 윤리적이기 보단 정치적

2. 원인 : ^{**} 과도한 강제력, 힘의 불균형

3. 해결책 : 7. 개인간의 갈등 : 합리적 설득 & 조정으로 해결

↳ 집단간의 갈등 : " 로 해결 XX, 완화는 가능

^{**}

D. 강제력 (폭력)

↳ 비합리적 수단

↳ 최소한

일반적 사람의 승인 (선외자의 통제를 받은 강제력) ex) 강제전학

⇒ 합리적 요소에 부합하는 강제력

(도덕성)

양심 높은 개인이 반대해도 승인 가능

↳ ex) 석가모니, 예수

4. 니부어의 이상 : 7. 개인의 이상 : 이타심 발휘

↳ 사회의 이상 : 정의

↳ 서로 다름 BUT 배타적 X

^{**} 배타적
절대적

지속적 갈등 & 모순 발생

> 갈등. 모순 XX ⇒ 조화 가능

↳ 개인이 이타심을 잘 발휘하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

사형제도

* 형벌 < 범죄에 비해
공적 정의를 실현

* 일반적 입장

찬성 : 예방/방위/
응보주의 / 시기상조
반대 : 교화, 오류 가능성
정치적 악용, 인도주의

사형제도는 있어야 함.

1. 루소 : 존치론 : 7. 계약론 : 자연상태 (평화) => 사회생활 (불평등) => 계약: 일반의지를 실현

L. 살인자 : 계약파기자, 구성원 & 시민 (X), 공공의 적, 인격 XX

공동선

=> 시행실시 (선을 실현 : 생명 보존)

2. 칸트 : 존치론 : 7. 응보적 정의 : 동등성의 원리, 저울의 평행 (비유)

보복법 (등해 보복) 만이 형벌의 양 & 질 결정

형벌은 다른 선의 수단 XX,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 OO => 정언명령

L. 형벌 : 범죄자 : 형벌을 의욕 XX,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 (0) => 자유의지를 실현

: 살인자 : 사형 (죄책감을 해방) => 생득적 인격을 존중

3. 베카리아 : 7. 계약론 : 일반의사 (특수인사의 종합) => 총의 (국가의 생명 박탈권 XX)

동의하지 않아

사형은 국가의 전쟁선포

폐지론 주장

L. 공리주의 : 형벌은 사회적 해악에 비해

살인자 < 사형제 : 일시적 고통, 지속성, 유용성 ↓↓

존신노역형 · 공개적, => 지속성 & 유용성 ↑↑, 알고 있는 고통

그 자체로는 악!!

4. 벤담 : 상대론

: 7. 형벌 < 고통 : 악
선 (예방, 교화, 교정, 분기) 실현 => 필요 악

* 범죄의 이익 < 형벌의 고통 / 형벌의 해악 < 예방할 해악

L. 사형제 < 일반예방 : 범죄예방 (찬성)

특수예방 : 범죄자를 교화 (반대)

민주주의

1. 인권 : 바사크 : 7. 1세대 . 소극적 자유 (~로부터의 자유)

L 2세대 : 적극적 자유 (~에 의한)

C. 3세대 : 연대적, 전지구적 권리 ex) 환경, 전쟁, 소수자 차별

2. 대의 민주주의 (보완) : 7. 전자 민주주의 (직접 민주주의) => 단점 : 판옵티콘

L. 심의 민주주의 : 공론장 => 의사소통의 합리성 (담론윤리)

시민 불복종

: 체제변화 XXXX, 부정의한 법 & 정책의 변화 (위법 => 정의의 실현)

1. 소로 . 7. 근거 : 양심 (자연법)에 의거한 모든 부정의한 법에 불복종

L. 대상 : 인두세 => 기꺼이 치벌감수

C. 특징 :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중요

↓
국민이기 전에 인간으로 살아가

2. 간디 : 아힘사 (비폭력), 샨타 그라하 (진리추구)

3. 룰스 : 누가 :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
민주헌법의 의도를 인지하는 시민

: 어디에서?: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만 => 근거: 다수의 정의관, => 의회, 청원 => 정의감

부정의한 법 & 정책 < 일부준수 >
정의의 원칙은 심각 위배
↳ 원칙, 기회균등만!!

합법적
< 시도 >

< 시민불복종 >

최후의 수단
공개적
비폭력
치벌 감수
성공 가능성 기대

법에 대한
충실성

4. 싱어 : 공리주의 (결과주의) . 7 결과를 고려 (이익 & 손해)

악의 크기 vs 민주주의 & 법에 대한 존중심 감소 (저울질)

L. 근거: 다수의 행복, 소수가 지지하는 법 & 정책도 가능 ex) 동물복지

C. 특징: 최후의 수단, 공개적, 비폭력, 치벌 감수, 성공 가능성 고려

20강. 과학기술과 윤리

1 양면성

- 1. 긍정적: 베이컨 (아는 것 힘) ⇒ 과학지상주의 / 뉴아틀란티스
- 2. 부정적: 인간 소외 (러다이트 운동) ⇒ 기술혐오주의
- 2. 가치중립성 (진위판단, O/S. 선악판단 X)

1. 강조: 기술 그 자체는 가치판단 (X)

7. 야스퍼스: 기술 그 자체는 참과 거짓 판단 대상임

⇒ 이용한 결과 (사상): 선 & 악

8. 푸앵카레: 과학과 윤리는 별개의 두 윤

2 비판: 7. 하이데거: 가치중립성 강조 ⇒ 무방비상태

*

8. 요나스 「책임의 윤리」: 책임윤리 (새로운 윤리)

- 배경: 윤리적 공백, 공포의 발견술 < 선보다 악 발견이 쉬움 >
- 계승: 칸트의 정언명령 (형식) < 희망보다 공포 >

- 책임윤리

- 네 행위 효과 ⇒ 전자구적 존재와 조화 (S) 과학은 인정 (자정능적)
- " ⇒ 전자구적 존재 파괴 X

- 현대대의 책임 (책임질 수 능력) → 미래세대, 자연, 생명체 < 지속가능성 >

* 일반적, 비호혜성 (부모 ⇒ 자녀), 존재론 (창조자)

사후적 < 사전적, 예방적, 예견적 책임 > 보상적 책임

9. 막스 베버: 맥락

- 정당화: 진리로 인정 (이론) ⇒ 가치중립성
- 발견 & 활용: 가치판단 O

3. 기술자의 책임

1. 내적 책임: 연구과정 ⇒ 오픈하이머
 성실, 표절, 날조, 조작

2. 내적 책임 + 외적 책임 (사회적 책임): 연구결과 & 사회적 영향력 검토 ⇒ 하이젠 베르크